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The Relations of Peer Competence to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손승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은혜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

Lecturer : Son, Seung Hee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 : Rhee, Unha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peer competence to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subjects were 88, 6-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struments used included the Peer Competence Scale, PIPS, and the revised version of IPBI.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 correlations, partial correlations, and stepwise regression. Children's sociability was explained mostly by mothers' intimacy-reasoning guidance, parental involvement, and children's positive alternative Solutions.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as explained mostly by mothers' intimacy-reasoning guidance and children's positive alternative solutions. Children's leadership was explained

Corresponding Author: Son Seung 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133, Ojeong-dong, Hannam Univ, Daejeon, Korea

Tel: 82-42-629-7437 Fax: 82-42-629-7437 E-mail: snoopy0214@hanmail.net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most by mothers' involvement and limit setting in parenting.

주제어(Key Words):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 대인간 문제해결능력(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어머니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behavior)

I. 서론

최근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과거에 비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일찍부터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인지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인 관계에 대한 기술 습득이나 탈중심화, 올바른 성역할의 발달 및 자아개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Ellis, Rogoff, & Crown, 1981).

한편 아동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고등학교에서의 중퇴,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범죄와 정신병리 및 사회생활에의 부적응을 예언한다는 여러 연구들(Parker & Asher, 1987; Roff, Sells, & Golden, 1972)은 유아기 또래관계가 사회성 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 사이에 '집단따돌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어려서부터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유능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주요 발달적 이슈를 제시한 Waters와 Sroufe(1983)에 의하면 취학전 아동의 주요 발달과제는 또래관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또래 유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촉진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또래평정, 또래지명과 같은 사회성 측정법(문혁준, 2000; Hart, Ladd, & Burleson, 1990)을 사용하거나 또는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의

핵심을 또래관계로 간주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윤영신, 1992; Pettit, Dodge, & Brown, 1988)을 측정하여 또래 유능성을 평가하여 왔기 때문에 또래 유능성과 사회적 유능성은 혼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거나 또는 단순히 또래수용도, 또래지위만을 측정하여 대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술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예로써, 박주희(2001)의 연구에서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을 포함하여 또래 유능성을 개념화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나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사회인지 능력(윤영신, 1992; Shure, Spivack, & Jaeger, 1971; Pellegrini, 1985) 또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와의 관계(김지신, 1996; 박주희, 2001; Cohn, 1990; Rubin, LeMare, & Lollis, 1990)와 연결지어 이루어져왔다.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동의 능동적이고 내적인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나 적응 여부를 결정짓는데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임연진, 1999).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욕구와 생각을 갖고 있는 또래와 하루에도 몇 번씩 대인간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아동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다양하다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또래 관계가 지속되고 또래에게 선호된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이 더 많다면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아동은 또래에게 배척당하게 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유아기는 대인간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스스로 모색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여 문제해결의 결과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다(조복희, 양연숙, 김암이, 정미자, 박혜정, 한유미, 1997). 그러므로 아동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고 발달시키는 것은 또래관계의 형성, 유지, 그리고 이후의 사회적응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취학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인간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장애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많이 생각해내는 아동과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의 원인에 대해 적절하게 추측하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였다(Pellegrini, 1985; Shure et al., 1971). 또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실제적인 사회적응 정도를 측정한 연구들은 사회부적응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해결방안의 수도 다양하지 않으며,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Spivack & Levine, 1983).

이처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아동의 대인관계, 정신건강, 비행 등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Oden & Asher, 1977).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개 비정상 아동 또는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박영준, 1991)하거나 아동의 또래지위 및 또래수용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윤영신, 1992)가 대부분으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동의 내적인 능력이 기여하는 부분

도 있지만, 아동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관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어머니가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아동은 복종적이고 공격적이며 타인에 대한 사려가 부족하다고 하였다(김지신, 1996). 또한 어머니가 유아를 비판하고 거부적이면 유아가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가 낮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유능하지 못하다(Cohn, 1990; Rubin et al., 1990).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에게 수용되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은 계속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동의 또래유능성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아동 자신의 능동적 역할이 간과되고, 아동의 내적인 특성만을 강조하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의 발달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적인 특성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나아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또래 유능성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자료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아동의 또래 유능성은 어머니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갖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중류층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2곳에 다니는 만 6세 아동 88명(남아 52명, 여아 36명)과 그들의 어머니 88명이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류층 지역의 어린이집 두 곳을 임의선정 한 후 이들 어린이집의 만 6세 반 3학년 아동 100명을 선정하였으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88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가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어머니 평균연령은 36.7세였으며, 대다수의 어머니(89.8%)가 대졸 이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어머니 중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가 72명(81.8%), 시간제 취업이 5명(5.7%), 비취업이 11명(12.5%)으로 취업모의 비중이 높았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또래 유능성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이은혜(2001)의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정 하는 것으로,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요인별로 5문항씩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며, 영역별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래관계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15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5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사교성은 .94, 친사회성은 .89, 주도성은 .92로 나타났다.

2)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ure와 Spivack(1974)의 대인간 문제해결과제(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IPS)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IPS는 또래와의 상황과 어머니와의 상황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의 관심이 또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황만을 사용하였다. 또래와의 상황은 한 아동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다른 아동이 갖고 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 상황이다.

검사는 기본 에피소드 7개, 추가 에피소드 3개로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있다. 기본 에피소드는 아동 모두에게 주어지며, 추가 에피소드는 7개의 에피소드에서 계속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아동에게만 주어진다. 각 에피소드는 모두 한 아동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등장인물의 이름, 장난감의 종류는 에피소드마다 바뀌게 된다. 검사에 사용된 그림 자료는 검사대상 아동과 동성의 그림이 그려진 것을 사용하였고, 각 에피소드에서 제시되는 장난감은 PIPS에 제시된 장난감을 기초로 현직 만 6세반 교사 2명의 도움을 받아 아동들이 흥미 있어 하는 장난감으로 수정하였다. 남아의 경우, 자동차, 공, 사진기, 야구방망이, 비행기, 블록, 자전거이고, 여아의 경우, 인형, 탬버린, 공, 사진기, 그림책, 블록, 자전거이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두 명의 아이가 그려진 그림과 장난감 그림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동이 이야기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후 "△△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이가 가지고 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 아동이 각 에피소드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반복, 열거, 해결방안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경우, "그

렇게 할 수 있구나. 또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여 3번까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 3번의 에피소드에서 연속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검사는 끝나게 된다.

아동의 반응에 대한 채점은 <표 1>에 제시된 범주에 따라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적절한 해결방안에 속하는 것(relevant solution), 해결방안이 아닌 것(no-solution), 열거(enumerations), 반복(repetitions)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반응을 기입하였다. 적절한 해결방안에 속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말하며, 이와 같은 해결방안은 각 반응마다 1점씩 할당한다. 해결방안이 아닌 것, 열거, 반복은 0점으로 처리한다.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점수는 제시된 문제에 대해 아

동이 적절한 해결방안에 속하는 반응을 이야기 한 총점으로 계산되고 각 에피소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1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0 점이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문제해결 능력 점수는 아동이 제시한 적절한 반응 중 긍정적 범주에 속하는 반응들의 합으로 계산되었고, 부정적 문제해결 능력 점수는 아동이 제시한 적절한 반응 중 부정적 범주에 속하는 반응들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본 검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연구대상 전체 아동 88명의 자료에 대한 채점자 2명의 동의율로 구한 결과 .94로 나타났다.

3)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rase, Clark과 Pease(1978)의 Iowa 부모행동척도(Iowa

<표 1>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검사의 범주별 반응예와 점수

	범주	반응 예	점수	
긍정적 해결 방안	요청	·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되니?, 빌려줄래?	1	
		· 제발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되니?(좀 더 공손한 표현)	1	
		· 내가 그거 잠깐 가지고 놀아도 되니?, 내가 놀고 다시줄게	1	
	공평	· 우리 같이 놀자, 너는 공을 차고 나는 받을게	1	
		· 너랑 나랑 차례로 사이 좋게 놀자, 돌아가며 놀자	1	
	기다림	· 친구가 다 가지고 놀 때까지 기다려요	1	
	심리적 자극	· 나 너 좋아해, 난 이 장난감이 정말 좋아	1	
교환	· 내 장난감이랑 바꾸자.	1		
부정적 해결 방안	보상	· 나랑 놀면 훨씬 재미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노는 동안 너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데	1	
		· 사탕을 줘요, 아이스크림을 줘요(물건제외)	1	
		· 고장난거 고쳐줄게, 자전거를 밀어줘요(서비스제외)	1	
	권위의존	· 우리 집에 놀러오게 해줄게, 생일파티에 초대할게(약속제외)	1	
		· 엄마(아빠, 누나 등)에게 말해요, 선생님한테 말해요	1	
	계책(속이기)	· 거짓말해요(속여요), 친구가 부른다고 거짓말해요	1	
	공격성	빼앗기	· 장난감을 뺏어요, 가로채요, 잡아채요	1
		일방적 주장	· 친구를 때려요, 발로 차요, 물어요(신체적)	1
			·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고 앞이 안보이게 되면 장난감을 가지고 와요(도구이용)	1
			· 너 자동차를 부숴꺼야, 너 책을 찢을 거야(소유물 손상)	1
· 너랑 안 놀아!!(언어적)			1	
· 개(고양이)를 뒤쫓게 해요(위협적인 대상이용)	1			
훔치기	· 야 이리 내!!, 내꺼야!!	1		
	· 친구가 안볼 때 몰래 가져와요	1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번안·수정한 김정아(1989)의 질문지를 참고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정아(1989)의 질문지에서 Cronbach α 가 .70 이하인 적극적참여(.62), 한계설정(.67), 친밀성(.58) 요인에 박주희(2001), 박영애(1995), Crase와 그의 동료들(1978)의 척도 원문을 참고하여 6문항을 추가해 33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질문지로 대상 어머니들에게 자료를 수집한 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사각회전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여 31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즉, 온정·합리적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1.61~9.21로 나타났으며, 이 네 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54%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91이었고, 온정·합리적지도 .93, 반응성 .82, 한계설정 .81, 적극적 참여가 .94로 나타났다. 온정·합리적 지도(14문항)는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애정표현 하기,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반응성(6문항)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한계설정(7문항)은 자녀의 일에 규칙과 한계를 정해주고 자녀가 이를 지키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적극적 참여(4문항)는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이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에 관련된 양육행동이 높게 보고된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검사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 6월 8

일에 본 연구의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만 6세 아동 8명(남아 4명, 여아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대상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다른 아이들의 방해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검사도구로 사용되는 그림의 적절성, 대상 아동의 검사 이해 정도, 검사에 대한 아동의 반응, 연구자의 언어적 지시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호한 그림이 발견되어 수정하였고, 새로운 반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아동도 있었으므로 이런 아동에 대해 반응을 이끌어내는 적절한 언어적 지시 방법을 확인하였다('맞는 답과 틀린 답은 없으니깐 ○○이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된다'). 한 아이 당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었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아동의 또래 유능성 척도는 각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응답을 하게 하여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는 각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하여 집으로 보내 작성하게 하여 2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검사는 연구자와 사전훈련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1명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검사는 다른 아동에게 방해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독립적인 공간(전이 공간, 도서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대화로 대상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아동에게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동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한 아동 당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Window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전분석에서 아동의 성별과 긍정적 문제해결능력 간에 유의한 관계($r=.34, p<.01$)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을 통제하고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또래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중 긍정적인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성별과 유의한 관계($r=.34, p<.01$)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을 통제한 후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간의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교성과 친사회성은 긍정적 문제해결능력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정적 문제해결능력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친사회성은 아동의 부정적인 문제해결능력과의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이 또래와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해

결방안이 많을수록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동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은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능력 및 부정적 문제해결능력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유능성 간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첫째, 사교성과 친사회성의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적극적 참여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온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동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도성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반응성과는 경계선 수준($p=.08$)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온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아동에게 규칙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한계를 정해주고, 아동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어머니가 아동에게 온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아동과의 놀이나 활

<표 2>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점수간의 부분상관 계수

(N=88)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또래 유능성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긍정적 문제해결능력	.33*	.31**	.15	
부정적 문제해결능력	-.13	-.19*	.06	

* $p<.05$ ** $p<.01$

<표 3>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점수간의 상관계수

(N=88)				
양육행동	또래 유능성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온정·합리적지도	.45**	.39**	.32**	
반응성	.28**	.21*	.19+	
한계설정	-.08	.14	.28**	
적극적참여	.43**	.34**	.33**	

+ $p<.10$ * $p<.05$ ** $p<.01$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사교적, 친사회적, 주도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어머니가 반응적일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이며, 어머니가 일관적으로 한계를 설정할수록 아동이 또래집단에서 주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또래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

또래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인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인 긍정적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문제해결능력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이었다.

먼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교성을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온정 합리적 지도,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성은 이들 세 변인에 의해 총 33%의 변량이 설명되었으며,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지도에 의해 23%, 적극적 참여와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능력에 의해 각각 5%가 추가 설명되었다. 즉, 어머니가 아동을 온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표 4> 아동의 사교성에 대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어머니 양육행동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88)

변인	β	누적 R ²	ΔR^2	F
1. 온정·합리적 지도	.30	.23	.23	25.64**
2. 적극적 참여	.29	.28	.05	6.46*
3. 아동의 긍정적 문제 해결능력	.23	.33	.05	6.19*

* $p < .05$ ** $p < .01$

참여하며,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사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와 같이 아동의 친사회성을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지도와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친사회성은 이들 변인에 의해 총 25%의 변량이 설명되었으며,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지도에 의해 16%,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능력에 의해 추가로 9% 설명되었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온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아동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주도성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주도성을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적극적 참여와 한계설정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주도성은 이들 변인에 의해 총 16%의 변량이 설명되었으며,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11%, 한계설정에 의해 5% 추가

<표 5> 아동의 친사회성에 대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어머니 양육행동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88)

변인	β	누적 R ²	ΔR^2	F
1. 온정·합리적 지도	.36	.16	.16	15.91**
2.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능력	.30	.25	.09	10.13**

* $p < .05$ ** $p < .01$

<표 6> 아동의 주도성에 대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어머니 양육행동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88)

변인	β	누적 R ²	ΔR^2	F
1. 적극적 참여	.29	.11	.11	10.83**
2. 한계설정	.22	.16	.05	4.50*

* $p < .05$ ** $p < .01$

설명되었다. 즉, 어머니가 아동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에 대해 일관적으로 한계를 설정할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지도와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능력은 아동의 사교성, 친사회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고,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는 아동의 사교성, 주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 밖에도 어머니의 한계설정은 아동의 주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동의 사교성(김정아, 1989; 문혁준, 2000), 친사회성(조복희 외 5인, 1997; Đekovic & Janssens, 1992)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및 적극적으로 아동과 놀이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고 한 MacDonald와 Parke(1984)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또한 대인간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방안이 많을수록 교사에게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된다는 윤영신(1992), Shure와 그의 동료들(1971), Pellegrini(1985)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어머니 양육행동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지도와 적극적 참여가 아동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은 부모로부터 온정적인 양육을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Putallaz & Heflin, 1990) 이를 바탕으로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쉽게 친구를 사귀고 또래와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아(1989), 박주희(2001), MacDonald와 그의 동료

들(1984)은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놀이상황에서 애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부모의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적극적이고 애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아동은 사회화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의 행동을 학습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언어표현과 행동의 지침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아주기'와 같은 신체적 행동으로 애정표현 하기, 자랑스럽다고 칭찬해주기, 자녀가 잘못된 이유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 말로 설명해주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 같이 놀아주기 등과 같은 어머니의 구체적인 행동은 아동의 또래 유능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애착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Bowlby(1980)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와의 초기 애착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키고 아동은 이를 이용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온정적이며 민감하고 반응적인 부모의 아이들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Shaffer, 2000),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또래와의 관계에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은 아동의 주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일관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활동성, 책임감, 독립심과 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김정아, 1989)와 일관된 것이다. 부모가 아동의 행동이나 생활습관에 일관적으로 한계를 설정해 줄 경우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계획성, 창조성이 생기게 된다(Baldwin, 1948; Maccoby & Jacklin, 1980, 재인용). 그러므로 아동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래관계에서 자

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아동의 사교성, 친사회성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동이 대인간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해결의 성공률은 높아지게 되고(Shure et al., 1971) 이러한 성공적인 문제 해결로 인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또래와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또래와 협동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래와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이 많은 아동은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더 이상 갈등상황을 보이지 않고 원만하게 또래들과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교사에게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이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또래와의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안이 부족한 아동에게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유능하게 또래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동의 긍정적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은 또래 유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적극적으로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고, 아동의 행동에 일관적으로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류층 이상의 정상집단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의 수 또한 충분하지 않은 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 검사가 자기 보고에 의한 것이라 실제 행동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을 측정하는 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정아(198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영준(1991). 대인관계 문제해결 훈련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 이은혜(2001). 취약한 아동용 또래유능성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윤영신(1992).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과 사회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진(1999).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

- 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 양연숙, 김암이, 정미자, 광혜정, 한유미 (1997).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6), 249-259.
- Bowlby, J. (1980). *Attachment &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rase, S. J.,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ekovic, M., & Janssens, J. M. A.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Ellis, S., Rogoff, B., & Crown, C. C. (1981). Age segreg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9-407.
- Hart, G. H., Ladd, G. W., & Bureson, B. R. (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 *Child Development*, 61, 127-137.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Oden, S., & Asher, S. R. (1977). Coaching children in social skills for friendship making. *Child Development*, 48, 495-506.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llegrini, D. S.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6, 253-264.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s-children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89-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ff, M., Sells, S. B., & Golden, M. M. (1972).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ubin, K. H., Le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and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17-24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Tomson Learning.
- Shure, M. B., & Spivack, G. (1974). *The PIPS test manual*.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Shure, M. B., Spivack, G., & Jaeger, M. (1971). Problem-solving thinking and adjustment among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 1791-1803.
- Spivack, G., & Levine, M. (1983). *Self-regulation in acting-out and normal adolescents*. Report M-4531.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2003년 12월 29일 접수, 2004년 2월 27일 채택)